

## 그리스도안에서 약함의 강함

김동수

Nyack College

육신의 장애는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약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육신의 장애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강하고 능력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성경말씀안에서 육신의 장애 나아가 육신의 연약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안에서 강하고 능력있는지 알아보고 또 그것의 구속적 의의(redemptive significance)를 발견하고자 한다.

### I. 바울의 약함: 육체의 가시 (고후 12:7)

그리스도안에서 약함이 강함인 것을 깨닫고 가르친 대표적 성경 저자 중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 장 7 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께 세 번 간구했지만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하셨다 (고후 12:9). 이렇므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게 하려한다 (고후 12:9).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것은 그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다 (고후 12:10).

여기서 바울의 약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울의 약함은 그가 말씀하는 그 육체에 있는 가시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 대체로 네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육체의 병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터털리안은 바울이 머리 혹은 귀에 심각한 통증을 겪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것이 곧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고 기록했다.<sup>1</sup> 제롬과 라이트풋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육체의 질병을 가리킨다고 본다.<sup>2</sup> 필자는 이 견해가 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임했던 핍박을 가리킨다는 해석이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데오도르 등이 이 해석을 따른다.<sup>3</sup> 근래에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는 멀린스와

<sup>1</sup> Tertullian, *De Pudicitia*, XIII. "Per dolorem, ut aiunt auriculae vel capitis." Cited in Neil Gregor Smith, "The Thorn that Stayed An Exposition of II Corinthians 12:7-9," *Interpretation* 13, no 4 (Oct 1959): 410.

<sup>2</sup> J. B. Lightfoot,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New York, 1896), 186-91.

<sup>3</sup> *Ibid.*, 187-88.

믹칸트다. 터렌스 멀린스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적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up>4</sup> 그것은 "사단의 사자"라는 구절에서 "사자"(앙겔로스)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을 사단의 사자가 친다고 할 때 동사 콜라피조우(가격하다)는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고후 11:11-15 절에서 바울이 사단이 빛의 사자의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고 표현할 때 사자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가시(스콜롭스)는 칠십인역에서 원수를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신 33:55; 수 23:13; 겔 28:24). 멀린스와 마찬가지로 믹칸트도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는 육체의 가시는 고린도교회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sup>5</sup> 그러나 이 두번째 해석 특히, 멀린스와 믹칸트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는 그들이 고후 12:2 절의 "십 사 년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는 구절의 의미를 간과했다는 것이다.<sup>6</sup> 즉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된 것은 그가 고린도후서를 쓰기 십 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뒤라는 것이다.<sup>7</sup>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주후 56-58 년 경에 썼다고 보면 그가 육체의 가시를 받은 때는 주후 42-44 년경으로 추정되고 이는 그가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교회에 와서 섬기기전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때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기술하는 거짓사도들에 의해 공격받기 전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육체 밖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던 가시였다는 점에서 바울의 적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시"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방해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LXX 호 2:8).<sup>8</sup> "사단의 사자"도 사람이 아니라 질병을 가리키기도 한다 (욘 2:5; 누가 13:16).<sup>9</sup>

셋째, 이는 아퀴나스나 벨라민이 지지했고 로마교회가 수용한 견해인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육신의 유혹 특히 욕정이라는 해석이다.<sup>10</sup> 이 해석도 근거가 희박한데 그 이유는 그 받은 계시가 크므로 소위 바울이 씨름하던 성적 유혹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논리다. 그리고 성적 유혹이 왜 그가 다소에 머물던 기간에 시작되어 끝까지 그를 괴롭힌 가시가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성적 유혹과 씨름하던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롬 12:1-2).

<sup>4</sup> Terence Y. Mullins, "Paul's Thorn in the Fles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6, no 4 (Dec 1957): 299-303.

<sup>5</sup> J. McCant, "Paul's Thorn of Rejected Apostleship," *NTS* 34 (1988): 550-572.

<sup>6</sup> Ronald Russell, "Redemptive Suffering and Paul's Thorn in the Flesh," *JETS* 39/ 4 (Dec 1996): 567.

<sup>7</sup> Murray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855.

<sup>8</sup> Russell, "Redemptive Suffering", 567.

<sup>9</sup> Ibid.

<sup>10</sup> Lightfoot, *Galatians*, 188.

넷째, 루터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당한 영적 고난이라고 해석한다.<sup>11</sup> 이 해석은 이전의 두 해석보다 나은 해석으로 보인다. 바울은 그가 받은 많은 시련과 영적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생길 수 있는 교만을 다스릴 수 있었는 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환난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씀한 바울이 그 영적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세 번 기도했을 리 없다 (골 1:24). 더욱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23-28 절에서 서술하는 핍박과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필연적으로 당한 고난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치하하고 위로하고 있다 (고후 1:4-11).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세 번 간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가 당한 영적 고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견해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육체의 질병이었다는 해석이다.

라이트풋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육체에 있던 병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12</sup> 첫째, 가시(스콜롭스)는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병을 가리키는 은유로 보아야 한다. 둘째,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써 그의 영적 특권을 보잘것 없게 하며 그의 영적 교만을 제어할 수 있던 육체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킨다. 셋째, 바울은 그것이 그의 지조와 결의에 대한 심각한 시험이었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넷째, 그것은 사람들로 부터 숨길 수 없는 것이었고 그의 청중들에게 경멸이나 혐오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섯째, 고후 10:10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의 육체의 가시가 가져온 영구적 결과를 찾아 낼 수도 있다.<sup>13</sup> 여섯째, 그것은 계속 재발하는 것이었다. 그가 처음 육체의 가시를 가졌을 때는 주후 44 년경이었고, 그 후 갈라디아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후 51, 52 년)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갈 4:13-15),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데살로니가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여러번 원했지만 사단이 그의 일행을 막았다고 말씀할 때 이는 바로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전 2:18).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약했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기술은 그의 병약한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고전 2:3) 고후 1:8-9 절에 그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기술한 것은 바로 그의 육체의 질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트풋이 제시한 위의 조건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석으로써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곧 그의 육체의 병이었다는 점이 확실하다.

<sup>11</sup> Ibid., 188-89.

<sup>12</sup> Ibid., 189-91.

<sup>13</sup>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고후 10:10 절)

그러면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을까. 갈 4:13-15 절에 근거해 어떤 학자들은 그가 안질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14</sup> 그러나 안질이 사람들에게 경멸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을까. 맨건은 바울이 언어장애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sup>15</sup> 그러나 말더듬이 문제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쓰롤은 그것은 두통, 램세이는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이었다고 본다.<sup>16</sup> 라이트풋은 그것이 극심한 두통이었을 것으로 보지만 간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sup>17</sup>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병이었다고 보는 대부분의 학자는 그 병의 정체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sup>18</sup>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로인해 그의 선교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살전 2:18; 롬 1:13; 고전 2:3). 또한 그것은 만성적인 병이었고 바울의 영적 교만을 제어하기에 충분할 만큼 굴욕감을 주는 병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바울은 그 병으로 인해 누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가격하는 것같은 고통을 느꼈고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이 이방인 선교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 II. 그리스도안에서 약함의 유익

그러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어떤 유익을 가져왔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7-10 절에서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을 기술한다. 첫째, 그의 육체의 병은 자신을 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돕는다 (고후 12:7).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진다 (고후 12:9). 셋째, 자신이 약할 그 때 곧 강하다 (고후 12:10). 여기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강한 것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연약함에 있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약함은 자고해지는 것을 억제한다

<sup>14</sup> Peter R. Ackroyd, "The Thorn in the Flesh," *Expository Times* 80 (1969): 126.

<sup>15</sup> Edward A. Mangan, "Was Saint Paul an Invalid?",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 no 1 (Jan 1943): 68-72; So L. Murillo, S.J., *Paulus et Pauli Scripta-Prima Pars, Paulus* (Rome, 1926), 101.

<sup>16</sup> M. E. Thrall,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I: Commenatry on II Corinthians VIII-XIII* (Edinburgh: Clark, 2000), 818; W. M. Ramsay, *St. Paul the Traveller and Roman Citize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96), 94-97.

<sup>17</sup> Lightfoot, *Galatians*, 191.

<sup>18</sup> Gordon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1994), 352-53; F. F. Bruce, *An Expanded Paraphrase of the Epistles of Paul* (Exeter: Paternoster, 1965), 155.

첫째, 육체의 장애나 연약은 교만이나 자만을 억제한다.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바울은 환상가운데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고후 12:2). 그는 그 때 몸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때 그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고후 12:4). 바울이 환상가운데 낙원에 이끌려 간 경험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보좌와 그 보좌 주위의 네 생물들과 이십 사 장로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양께서 인을 떼시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4-5장). 바울은 자신이 받은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표현한다 (고후 12:7).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13-5:11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3-2:12절의 기록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같은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나 요한사도와 같은 반열의 사도임을 나타낸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 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임을 말씀하고 있다 (고후 11:5; 12:11). 그는 사도의 표로써 그가 교회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상기시킨다 (고후 12:12). 이러한 사도의 권위를 가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은 그 사역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11:22-28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방어하면서 자신이 유대사회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회심한 후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어떠한 수고를 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강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후 11:22-28).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당한 극심한 핍박과 고초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영웅심과 오만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다메섹도상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 바울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 (고전 4:16).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순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관제의 제물로 바쳤다 (딤후 4:6-8).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땅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신약성경에

포함된 열 세권의 서신이 기록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감된 서신을 통해 그는 기독교론,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등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에 관한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쳤다. 바울의 사역이 없었으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과 같이 세계화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바울의 약함을 통한 강함을 인해 복음의 씨가 전 세계에 뿌려지게 하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능력있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연약함속에 온전하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후 12:9).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연약함과 강함의 함수를 발견한다. 강함은 강함속에 발생하지 않고 연약함속에 주어진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헤이 두나미스 투 크리스투)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고후 12:9 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환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9</sup>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요 약함속에 온전하게 된다. 고든 피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20</sup> 이 견해도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개념이다 (고후 13:4).<sup>21</sup> 바넷은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한 신자들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인내와 참으심과 온유와 친절하심에 있어서 경험된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어서 나타난다"고 말한다.<sup>22</sup> 그리스도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나 가르침의 능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과 관계있다.<sup>23</sup>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다 (고전 1:18). 또 그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한다 (고후 13:4). 바울은 여기서 철저하게 자신이 약함속에 강하게 된 경험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약해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강하게 되신 모형을 배경으로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곧 그가 연약한 가운데 자고하지 않고 충성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신 능력이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인내의 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주어진 사도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이 전하던 복음의 능력과

<sup>19</sup>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sup>20</sup>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352-354.

<sup>21</sup> Ralph P. Martin, *2 Corinthians* (WBC 40; Waco, TX; Word Books, 1986), 419-20.

<sup>22</sup> Paul Barnet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572-73.

<sup>23</sup> *Ibid.*, 574.

진실성을 세상에 나타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redemption)의 적용과 완성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지 단지 영적 황홀경의 경험을 가져오는 초월적 도구가 아니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낙원에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이 때 경험한 영적 황홀경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 한다고 말씀한다 (고후 12:10).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세 번 간구했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울에게 족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연약함 속에 강함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이는 곧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 선교 사명의 완성과 관계되어 있었다 (고후 12:10).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과 반대로 고린도교회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던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황홀경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믿었다.<sup>24</sup>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약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반해 그 거짓 선생들은 십자가도 약함도 없이 오직 환상, 계시, 은사적 능력에만 가치를 두고 있었다 (고후5:11-13; 12:1-4).<sup>25</sup> 그들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교회에 들어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 (고후 2:17; 4:2).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친 유대주의자들(Judaizers)이었다 (고후3:6-16).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며 발표에 능했으며 바울이 말에 어눌한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고후10:10; 11:5). 바울은 그 당한 환난을 통해서 그 모습이 후패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했고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에 와서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신실한 종 바울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고후5:12). 나아가 그들은 바울을 폄하해 비난함으로써 성도들이 바울의 리더십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신임장을 가지지 않았다고 조롱했으며 (고후 3:1-3), 바울이 겁장이이고, 말이 어눌하고 (고후11:1, 6),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 잘못을 했다고 비난했다 (고후11:7).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도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던 것 같다 (고후12:12). 종합해 보면 그들은 은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며 교회를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 복음의 씨를 뿌리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바넷은 그들을 "승리주의자"(triumphalist)라고 부른다.<sup>26</sup>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약해지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약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육체적 "강함"을 통해 교회안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카리스마적 승리주의자들이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궤변을

<sup>24</sup> Ibid.

<sup>25</sup> Ibid.

<sup>26</sup> Ibid.

늘어놓는 자들이고 (고후10:4-6), 불순종하며 (고후 10:6), 자신들을 근거없이 높이며 (고후 10:12), 권위의 진정한 원천인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다 (고후10:12b).<sup>27</sup> 나아가 바울은 그들이 거짓사도요 궤활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한다 (고후11:13). 그들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사단의 일군이였다 (고후 11:14-15). 그들은 육신적으로 강함을 자랑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였다.

## 2.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데서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동사 텔레오우는 성취하다, 실행하다, 마치다 등을 의미한다.<sup>28</sup>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데서 종결된다, 역사한다 혹은 성취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 동사는 수동태 현재형으로써 계속 성취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고후12:7-10절에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개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영지주의자들은 완전의 상태에서 영적이고 능력자가 된다고 가르쳤다. 이에 반해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싸우는 적은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외모나 육신적인 능력을 이용해 교회내에서 물질적 이를 추구하던 승리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이였다. 따라서 여기서 반영지주의를 해석의 바탕으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sup>30</sup> 고후12:9절에서 전치사 엔은 도구적으로 보면 ...으로써(약함으로써)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육체적 장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취되게 하지는 않는다. 새비지는 "약함을 자각할 때만이 온전한 능력이 발생한다"고 말한다.<sup>31</sup> 사실 고후12:9절에서 약함(아스째네이아)은 약함 그 자체가 아니라 약함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약함을 자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sup>32</sup> 약함에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 간구했던 바울도 주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응답을 하시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여기서 전치사 엔은 장소적 용법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sup>33</sup> 엔은 장소적 의미로써 ...에 있어서(약함에 있어서)의 뜻을 가진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중에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sup>27</sup> David E. Garland, "Paul's Apostolic Authority: The Power of Christ Sustaining Weakness (2 Corinthians 10-13)", *Review & Expositor* 86, no 3 (Sum 1989): 371.

<sup>28</sup> BAGD.

<sup>29</sup> E. Güttgemanns, *Der leidende Apostel und sein Her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168; Ulrich Wilckens, *Weisheit und Torheit. Eine exegetisch-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su 1 Kor. und 2* (Tübingen: J. C. B. Mohr, 1959), 218, fn. 2.

<sup>30</sup> Gerald G. O'Collins, "Power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 12:9-10",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3, no 4 (Oct 1971): 531.

<sup>31</sup> Timothy B. Savage, *Power through Weakness: Paul's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Ministry in 2 Corinthians*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Monograph Se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87.

<sup>32</sup> Harris, *2 Corinthians*, 864.

<sup>33</sup> Ibid.



역사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동시성을 함의한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에 있어서 풍성해지고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다.<sup>34</sup> 오콜린스는 바울이 약할 때 혹은 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석한다.<sup>35</sup> 이 점에서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부수물(concomitant)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을 때 또는 강할 때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 또는 약함을 고백할 때 역사한다. 그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만일 바울이 육신적으로 강했고 오만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바울도 거짓사도처럼 승리주의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되었을 지 모른다.

### 3. 약할 그 때 강하다

약함의 세번째 유익은 강함이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 때 곧 강하다고 말씀한다. 여기서 강하다(두나토스)는 뜻은 무엇인가. 여기서 강함은 육체/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론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곧 10절에서 바울은 "후페르 크리스트투"(그리스도를 위해)라는 구절을 통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윈디쉬는 고후12:10a에서 강함은 바울이 인내하며 모든 고난을 참은 것과 모든 장애를 딛고 그의 사역을 완수한 힘이라고 해석한다.<sup>37</sup> 바넷은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를 섬긴 결과 발생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한다.<sup>38</sup> 우리는 바울의 약함의 기독교론적 측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말하듯이 자신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고후12:7절에서 주어지다(에도세이)는 동사는 수동태이며 그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때문에 그것을 준 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sup>39</sup>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온 복음전파를 위한 유익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단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다 (누가 13:16). 욥기 1장에서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욥창을 가져다 주었다. 이처럼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바울의 믿음을 통해 선한 열매를 가져왔다.<sup>40</sup> 나아가 영적 강함은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전15:43절에서 바울은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한다.

<sup>34</sup> Ibid.

<sup>35</sup> O'Collins, "Power Made Perfect in Weakness", 536.

<sup>36</sup> Harris, *2 Corinthians*, 864.

<sup>37</sup> H. Windisch, *Der zweite Korintherbrief*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4), 394.

<sup>38</sup> Barnett, *2 Corinthians*, 867.

<sup>39</sup>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5), 348.

<sup>40</sup> Harris, *2 Corinthians*, 855-56.

그러면 약함은 강함의 조건인가 아니면 강함의 존재적 바탕인가. 약함은 강함을 경험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플라머는 "인간의 능력이 넘치는 곳에 신의 능력의 효과는 간과된다...인간이 힘이 없는 것이 명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보다 실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해 진다"라고 말한다.<sup>41</sup>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신자에게 와 있지만 신자 자신이 약해질 때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는 바울의 경험은 그가 육체적 장애로 능력이 없었을 때 얼마나 더 그가 성취할 수 있는가를 가르쳤다고 말한다. 테너힐도 이같은 관점에서 "계속적인 약함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려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 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sup>42</sup> 이와같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해석은 약함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우리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기능적 해석은 약함의 존재론적 의미를 간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약함의 존재론적 의미에 동의하는 윈디쉬는 바울이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그 자신의 무력함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하늘의 실체가 그에게 임하는 전제조건이었다고 말한다.<sup>43</sup> 그는 "바울의 약함의 상태와 환경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고 자신에게 현현되는 것을 느끼는 때였다"고 말한다.<sup>44</sup> 이와 마찬가지로 약함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케제만은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동시적이라고 말한다.<sup>45</sup> 즉 바울은 그 육체적 가시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육체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계기였다기 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쿨멜도 "인간의 약함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자체를 나타내고 그 자체만이 보여지고 유효한 곳"이라고 말한다.<sup>46</sup> 오콜린스도 "바울은 단지 약함과 능력의 동시성을 말씀하고 있지 한 요소가 다른 요소의 선행조건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sup>47</sup> 그러나 필자는 기능적 해석과 존재론적 해석이 다 옳다고 본다. 자신의 약함이나 약함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sup>48</sup> 약함이 없이 강함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약함이 없이 부활의 강함을 경험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산다 (고후 13:4).

<sup>41</sup> Plummer, *2 Corinthians*, 354-56.

<sup>42</sup> R. C. Tannehill,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Berlin: Töpelmann, 1967), 100.

<sup>43</sup> Windisch, *Der zweite Korintherbrief*, 392.

<sup>44</sup> *Ibid.*, 192f.

<sup>45</sup> Ernst Käsemann, "God's Righteousness in Paul," *Journal for Theology and the Church* 1 (1965): 104.

<sup>46</sup> In the "Anhang" to H. Lietzmann, *Der zweite Korintherbrief*, 212 (on p. 155, line 53).

<sup>47</sup> O'Collins, "Power Made Perfect in Weakness", 536.

<sup>48</sup> 오토룬드는 하나님의 호의는 약함을 극복하려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는 자에게 온다고 말한다 (Dane Ortlund,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 12:9): A Biblical Theology of Strength Through Weakness," *Presbyterion* 36/2 [Fall 2010]: 87).

이는 약함이 없는 강함은 불가능하며 약함이 없는 강함은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강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III. 신약에서 약함의 강함의 예

그러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역설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은혜였는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보편적 은혜인가. 케제만은 약함의 은혜가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적 표적이었다고 말한다.<sup>49</sup> 오콜린스는 고후 4:7 절이하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대조하면서 사망은 자신에게 역사하고 영적 혜택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한다고 말한다. 이는 약함의 은혜가 특히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적 표적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sup>50</sup> 그는 또 고전 1:25 절이하에서 바울은 "너희가 약할 때 곧 너희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후 12:7-10 절이 말씀하는 약함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적 표적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바울이 사도로써 갈보리와 부활의 약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다.<sup>51</sup> 이 점에서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영역이었지 그 선행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콜린스는 "바울의 '약함'은 그 자신과 부활하신 주님 사이의 거래(transaction)였고 그것은 계시의 사도적 전파를 위해 역할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은 바울의 구체적 상황에서 유효했고 나아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sup>52</sup> 이와같이 오콜린스는 바울이 약함을 통해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의 사도적 표적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안에서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사실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한다 (고전 1:25-29).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함과 강함의 주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지 바울에게 나타난 사도적 표적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 또 고전 9:22 절에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의 약함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약함의 구속(redemptive)적 기능의 일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고후 11:29). 다시말해 바울의 육체적 약함은 다른 육체적으로 약한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일체의 계기로 기능했다. 이 점에서 고후 12:9 절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고 말한 바넷의 해석은 타당하다.<sup>53</sup>

신약성경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많은 장애인들은 그들의 육체적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누가복음 5:17-26 절은 한 중풍병자의

<sup>49</sup> Ernst Käsemann, "Die Legitimität des Apostels," ZNW 41 (1942): 53; So Hans Dieter Betz, "Eine Christus-Aretalogie bei Paulus (2 Kor 12,7-10)," ZTK 66 (1969): 297.

<sup>50</sup> O'Collins, "Power Made Perfect in Weakness", 535.

<sup>51</sup> Ibid., 536.

<sup>52</sup> Ibid., 537.

<sup>53</sup> Barnett, 2 Corinthians, 574.

치유에 대해 말씀한다. 그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건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그 몸에 흘러들어가게 된 것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13:10-17 절은 예수께서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술한다.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자 그녀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반면에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께 화를 냈다. 그러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군중은 예수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 사건은 약한 자는 예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면에 강한 자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9 장에서 요한은 한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기술한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의 죄를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는가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9:3). 주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소환했다. 그리고 예수가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자백을 얻어내려 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그를 출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함이라"고 하셨다 (요한 9:39).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며 강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영적 소경들이었다.

바울서신에도 그리스도안에서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가르침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의 한 측면을 예를 든다. 살전2:9절에서 그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라고 말씀한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통해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힘써 일해서 살아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리 섬니는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목적과 그들에 대한 사랑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 육체노동을 천시했던 상황에서<sup>54</sup> 바울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위해 한 노동은 그의 약함을 나타내며 또한 그가 약해짐을 택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sup>55</sup> 즉 바울은 그의 약함을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예증하는 중심적 요소라고 이해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sup>54</sup> R. F. Hock, *The Social Context of Paul's Ministry: Tentmaking and Apostleship* (Philadelphia: Fortress, 1980), 54-59.

<sup>55</sup> Jerry L. Sumney, "Paul's 'Weakness': An Integral Part of His Conception of Apostleship", *JSNT* 52 (1993): 87.

청중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었다 (고후4:7; 12:9-10; 13:4)".<sup>56</sup> 바울은 자신이 자비량 선교 수행을 위해 한 노동의 신학을 고전 9:3-2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는 자는 없고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자는 없다. 모세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것을 뿌리는 종이 육신의 샅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울은 이를 거절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고전 9:12).

바울은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윤리에 적용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다 정하다고 믿었고 우상의 제물로 쓰인 포도주나 고기를 먹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포도주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강한 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행사하며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도 약한 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약해지는 것 곧 자유를 반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태도라고 가르쳤다 (고전 8장). 고린도후서 9장은 구제를 통해서 강한 자가 약하게 되는 원리가 구현됨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나은 상태에 있던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성육신하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의 자선(almsgiving)과 동일선에 있는 행위다. 부요한 신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다.

오트룬드는 바울은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역설을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sup>57</sup> 즉 고후1:3-7절은 위로의 강함은 고난의 약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한다. 승리는 포로됨을 통해 온다 (고후 2:12-17). 그리고 풍부는 결핍을 통해 (고후3:1-6), 생명은 죽음을 통해 (고후4:7-15), 영원한 처소는 육체적 부활을 통해 (고후 5:1-5), 축복은 고난을 통해 (고후 6:3-10), 구원은 슬픔을 통해 (고후 7:2-10), 풍성함은 가난을 통해 (고후 8:1-2, 9, 14), 받는 것은 줌을 통해 (고후 9:6-8, 11), 칭찬은 불명예를 통해 (고후 10:10-18), 자랑은 역경을 통해 온다 (고후 11:16-30).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고후 12:7-10). 여기서 바울은 약함을 육체적 장애나 약함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고후12:10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바울의 약함은 육체적 약함뿐 아니라 그가 당한 핍박과 고난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

바울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원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부활의 강함을 입으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도 약해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기

<sup>56</sup> Ibid.

<sup>57</sup> Ortlund,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101.

원했다. 오트런드는 그리스도는 약함과 강함을 최고의 경지에서 경험한 분이라고 말한다.<sup>58</sup> 그러면 그리스도의 약함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예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 (요한 1:1).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한다 (히 1:3).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나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약함에 대해 쉬완트너는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의 일부 그리고 그 창조의 밀접한 한 부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주진, 분자, 염색체로 된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한다.<sup>59</sup> 역사에서 초월해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역사에 종속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른 마을보다 풍요롭고 전통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시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즉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태4:15-16). 예수께서는 가난하셔서 그 머리 돌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마태 8:20).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셨다 (요한 5:16).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는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한1:46; 7:41, 52; 18:5, 7; 19:19), 안식일 위반자 (요한5:16, 18; 9:16), 신성모독하는 자 (요한5:18; 8:59; 10:31, 33, 39; 19:7), 사람을 속이는 자 (요한7:12, 47), 귀신들린 자 (요한7:20; 8:48-52; 10:20-21), 사생아 (요한8:41), 사마리아사람 (요한8:48), 죄인 (요한9:16, 24-25, 31), 미친사람 (요한10:20), 행악자 (요한18:30), 반역자 (요한19:12; 참고 19:15, 21)라는 비난을 들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한다. 이사야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흙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했다 (사 53:2-3). 예수 그리스도의 약해지심은 실로 모든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약함을 망라하시는 것이었다.<sup>60</sup>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약함속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약함을 손수 공유하시며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없이 정죄를 당하시고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께서 받은 고난은 수난을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동물의 뼈나 날선 조각이 붙어 있는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로 인해 등이 갈라지고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피를 흘리셨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몸의 하중은 못에 박힌 양손과 발목에 걸쳐 있었다. 숨을 쉬기 위해 팔과 발에 무게를 지탱하고 온 힘을 다해 가슴을 위로 올려야 했는데 이 때 이미 뼈가 드러난 등은 거친 나무기둥과 마찰을 통해 살인적인 고통을 가중시켰다. 예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시고

<sup>58</sup> Ibid., 103.

<sup>59</sup> Christina M. Gschwandtner, "Sharing Our Weakness: Christ, Creation, and Fallennes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5, no 1 (Spring 2010): 169.

<sup>60</sup>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Prophet Isaiah, Vol. 3* (trans. William Pringle; reprint; Grand Rapids: Baker, 2003), 237.

십자가에 달린 지 세 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음부의 깊은 곳에 내려가기까지 약해지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천사들이 그를 위해 싸워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약해지신 것이다 (요한 18:36). 포이티에르의 힐러리는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을 공유하신 가운데 아버지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이로써 자신이 사람의 모든 종류의 연약함 가운데 나셨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왜 그가 배고팠고 목말랐고 지쳤고 악한 자들의 회를 멀리하셨고 슬퍼했고 우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이유다"라고 말했다.<sup>61</sup> 브라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노예가 된 세상에 침투하게 하셨다고 말한다.<sup>62</sup>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입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고전 15:20, 45). 마태복음 17 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장차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 영광은 예수께서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가지셨던 영광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그를 더욱 영화롭게 하셨다 (요한 17:1-5).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4-5 장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하늘의 천군천사는 야훼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어린양 예수께 똑같이 올려 드림으로써 온 우주의 컨트롤 타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 요한은 예수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고 말씀한다 (계 19:16). 바울은 아버지께서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한다 (골 1:19).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엡 1:21). 예수께서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무릎꿇게 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강함은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에 있어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한 강함의 역설의 결정체는 바로 복음이며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자로써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약함을 지니고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의 능력속에 살 것을 권면한다.

## V. 결론

그리스도의 약함의 강함은 십자가 신학의 패러다임이며 구속사에서 죄인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성취다. 포이쓰리스는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역설은 승리는 표면적 패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sup>63</sup> 이방인 복음전파 사명을 받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이 십자가신학의 패러다임 속에 살던 사도였다. 그의 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sup>61</sup> Hilary of Poitiers, "Homily on Psalm LIII,"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9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4), 245.

<sup>62</sup> Alexandra R. Brown, "The Gospel Takes Place: Paul's Theology of Power-in-Weakness in 2 Corinthians", *Interpretation* 52, no 3 (July 1998): 278.

<sup>63</sup> Vern S. Poythres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Language—A God-Centered Approach* (Wheaton, IL: Crossway, 2009), 207.

그는 그 약함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 고후6:8-10절에서 그의 고백은 이를 나타낸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자로다.

그 열매는 이방인 복음전파의 사명의 신실한 수행이었다. 바울은 이 패러다임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사도들의 승리주의에 속은 것이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진 것은 버림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다 (고후 13:6).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가지는 일부 신자들에게 반문한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안에서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거하시는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고후13:3-5).<sup>64</sup>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심으로써 그를 약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sup>65</sup>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의 육체적 강함은 반비례관계에 있다.<sup>66</sup> 아울러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의 영적 강함은 비례관계에 있다. 그것은 그 목적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자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기 위함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지 않는 강함은 복음의 열매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나 영광과 관계없는 육체적 강함이나 카리스마는 복음의 능력을 매개하는 창구가 아니다.<sup>67</sup>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함을 성취하신다.<sup>68</sup>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전 1:27). 이는 은혜의 원리를 나타낸다. 사람은 카리스마, 외모, 능변, 신임장, 공로 등 자신의 육체적 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천국백성이 된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처소다 (마태 5:3). 주님께서서는 천국잔치에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셨다 (누가 14:13).<sup>69</sup> 저들은 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sup>64</sup> Garland, "Paul's Apostolic Authority", 381.

<sup>65</sup> Larry J. Waters, "Paradoxes in the Pauline Epistles", *Bibliotheca sacra* 167, no 668 (October-December 2010): 429.

<sup>66</sup> Philip E. Hughe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451.

<sup>67</sup> Barnett, *2 Corinthians*, 572.

<sup>68</sup> Graham Tomlin, *The Power of the Cross: Theology and the Death of Christ in Paul, Luther and Pascal*, *Paternoster Biblical and Theological Monographs* (Carlisle: Paternoster, 1999), 100.

<sup>69</sup> Ibid.



은혜에 의존하는 자들이다. 약한 자들은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구원은 약한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점을 바넷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식, 건강, 부, 위치 등 자신들이 휘두르는 이 세상의 권력의 도구들을 가졌다면이라도 조만간 능력이 없어지고 약해진다. 이들은 그 무력함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도 (이들에게) 거하게 된다.<sup>70</sup>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통해 그의 약함속에 강함의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죽어지고 온전히 자신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진다. 장애자들은 이러한 약함의 강함이라는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들은 육체적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 자복하며 그 긍휼의 은총을 바란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도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꿇게 한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병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앞에 무릎을 꿇게 된 사람이다 (누가 8:41).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한 왕의 신하도 마음이 가난해져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고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요한 4:46-53). 이와 같이 육신적 장애는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무능력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원천이다. 이 점에서 장애는 수치와 패배의 상징도 아니며 방해물도 아니다.<sup>71</sup> 장애와 연약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경로다.<sup>72</sup> 그것은 표면적 패배를 통해 승리하신 십자가의 역설을 선전하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Peter R. Ackroyd, "The Thorn in the Flesh," *Expository Times* 80 (1969): 126.  
 Paul Barnet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H.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8.  
 Hans Dieter Betz, "Eine Christus-Aretalogie bei Paulus (2 Kor 12,7-10)," *ZTK* 66 (1969): 288-305.  
 Alexandra R. Brown, "The Gospel Takes Place: Paul's Theology of Power-in-Weakness in 2 Corinthians", *Interpretation* 52, no 3 (July 1998): 271-285.  
 F. F. Bruce, *An Expanded Paraphrase of the Epistles of Paul*. Exeter: Paternoster, 1965.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Prophet Isaiah Vol. 3*, trans. William Pringle. Reprint; Grand Rapids: Baker, 2003.  
 C. H. Dodd,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Minneapolis: Fortress, 1963.  
 Gordon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Hendrickson, 1994.  
 David E. Garland, "Paul's Apostolic Authority: The Power of Christ Sustaining Weakness (2 Corinthians 10-13)", *Review & Expositor* 86, no 3 (Sum 1989): 371-389.

<sup>70</sup> Barnett, *2 Corinthians*, 574.

<sup>71</sup> C. H. Dodd,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Minneapolis: Fortress, 1963), 19.

<sup>72</sup> H.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4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8), 169-70.

- Christina M. Gschwandtner, "Sharing Our Weakness: Christ, Creation, and Fallennes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5, no 1 (Spring 2010): 164-178.
- E. Güttgemanns, *Der leidende Apostel und sein Her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 Murray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 Hilary of Poitiers, "Homily on Psalm LIII,"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 9.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4.
- R. F. Hock, *The Social Context of Paul's Ministry: Tentmaking and Apostleship*. Philadelphia: Fortress, 1980.
- Philip E. Hughe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Repri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Ernst Käsemann, "Die Legitimität des Apostels," *ZNW* 41 (1942): 33-77.
- \_\_\_\_\_, "God's Righteousness in Paul," *Journal for Theology and the Church* 1 (1965): 100-110.
- J. B. Lightfoot,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New York, 1896.
- J. McCant, "Paul's Thorn of Rejected Apostleship," *NTS* 34 (1988): 550-572.
- Edward A. Mangan, "Was Saint Paul an Invalid?,"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 no 1 (Jan 1943): 68-72.
- Ralph P. Martin, *2 Corinthians* WBC 40. Waco, TX; Word Books, 1986.
- Terence Y. Mullins, "Paul's Thorn in the Fles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6, no 4 (Dec 1957): 299-303.
- L. Murillo, S.J., *Paulus et Pauli Scripta-Prima Pars, Paulus*. Rome, 1926.
- Gerald G. O'Collins, "Power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 12:9-10,"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3, no 4 (Oct 1971): 528-537.
- Dane Ortlund,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 12:9): A Biblical Theology of Strength Through Weakness," *Presbyterion* 36/2 (Fall 2010): 86-108.
-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of St. Paul to the Corinthians* ICC. Edinburgh: T. & T. Clark, 1915.
- Vern S. Poythres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Language—A God-Centered Approach*. Wheaton, IL: Crossway, 2009.
- W. M. Ramsay, *St. Paul the Traveller and Roman Citize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96.
- Ronald Russell, "Redemptive Suffering and Paul's Thorn in the Flesh," *JETS* 39/ 4 (Dec 1996): 559-570.
- Timothy B. Savage, *Power through Weakness: Paul's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Ministry in 2 Corinthians* Society for New Testament Studies Monograph Se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Neil Gregor Smith, "The Thorn that Stayed An Exposition of II Corinthians 12:7-9," *Interpretation* 13, no 4 (Oct 1959): 409-416.
- Jerry L. Sumney, "Paul's 'Weakness': An Integral Part of His Conception of Apostleship", *JSNT* 52 (1993): 71-91.
- R. C. Tannehill, *Dying and Rising with Christ*. Berlin: Töpelmann, 1967.
- M. E. Thrall,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I: Commenary on II Corinthians VIII-XIII*. Edinburgh: Clark, 2000.
- Graham Tomlin, *The Power of the Cross: Theology and the Death of Christ in Paul, Luther and Pascal*, *Paternoster Biblical and Theological Monographs*. Carlisle: Paternoster, 1999.

Ulrich Wilckens, *Weisheit und Torheit. Eine exegetisch-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su  
1 Kor. und 2.* Tübingen: J. C. B. Mohr, 1959.  
H. Windisch, *Der zweite Korintherbrief.*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4.